

男便의 權威主義的 意思疏通 關聯變因*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Husbands' Authoritarian Communication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柳 京 希

교 수 : 金 順 玉

Dept. of Home Management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Kyung Hee, Ryu

Prof. : Soon Ok, Kim

본 연구는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부인과의 대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부인의 정신·신체증상 호소라든가 가족문제를 야기시키는 한국남편의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관련변인을 밝혀내어 부부간의 민주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2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관련변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변인으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부부간의 학력차, 부부간의 연령차, 가족환경적 변인으로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 주관적인 사회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개인적 변인, 부부간의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전체분산 중 14.5%, 11.3%, 11.5%를 각각 설명해 주고 있다. 개인, 부부간, 가족환경 변인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는 자아존중감,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학력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전체분산 중 25.2%를 설명해 주고 있다.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현대사회에서는 부부의 애정과 친밀성이 가족을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인들은 전통사회에서 대가족의 年長者들에게 적응하여야 했던 것과는 달리 주로 男便에게 적응하게 되어 남편과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의 부부관계는 家父長的 權威를 바탕으로 한 지배와 복종의 종적인 관계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동등한 인격체의 만남으로 여기는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은 구조적으로는 핵가족화 되었으면서도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확대가족적 측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가지 모순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 역할 규범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는 성적 분업은 그대로 유지되어 가부장적 차별원리에 의한 수직적 부부관계가 여전히

*본 논문은 1994년도 석사학위 취득논문의 일부임.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영주, 1994 : 31).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부간의 의사소통에서 가부장적인 한국 가족의 특성에 깊숙히 뿌리박힌 남편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성격이 반영되어 한국 남편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유형인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이 나타나고 있으며(송성자, 1985 ; 채수옥, 1986 ; 김은심, 1988 ; 서수경, 1988 ; 이창숙, 1988 ; 이정순, 1991), 이것은 가족문제와 부인의 정신·신체증상 호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성자, 1985 ; 채수옥, 1986 ; 김은심, 1988).

그러므로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은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아 어떠한 요인을 개선 또는 강화시켜야 하는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문들(송성자, 1985 ; 채수옥, 1986 ; 김은심, 1988 ; 서수경, 1988 ; 이창숙, 1988 ; 이정순, 1991)은 부부 의사소통 유형 중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일부로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다루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부부관계의 의사소통은 그 유형이 여럿이고 또한 유형에 따라 독립변인들의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을 발견(Hawkins, 1977 ; 원효종, 1984 ; 서수경, 1988 ; 이창숙, 1988 ; 도미향, 1990 ; 이정순, 1991)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유형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남편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개별적인 분석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고, 남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부인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환경적인 요소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부부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연구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주로 관련변인으로 다루었으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 상호작용적인 관계특성과 가족환경특성을 모두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 혹은 부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個人的 變因, 夫婦間的 變因, 家族環境的 變因들과 이들 변인의 설명력을 각각 살

펴본 후, 개인적 변인, 부부간의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한 회귀모델에서는 얼마나 더 잘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가장 중요시되는 영향변인들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어떠한 면을 개선 또는 강화시켜야 할지 알아내어 부부간의 圓滿한 意思疏通과 民主的인 關係形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研究問題

〈연구문제 1〉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個人的 變因은 무엇이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夫婦間的 變因은 무엇이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家族環境的 變因은 무엇이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個人的 變因, 夫婦間的 變因, 家族環境的 變因들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理論的 背景

1. 權威主義的 意思疏通의 特性

권력의 유무에 따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나타나는 비합리적 권위에서 비롯되는 권위주의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특징(고영복, 1991)으로 家父長制 가족구조 하에서 신분서열에 의한 위계적 성격을 띤 인간관계, 長幼有序的 秩序존중, 男尊女卑상상 등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권위주의적 인간의 성격 속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평등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서(曾良中清司, 1983 : 165), 자신보다 우월한 자에게는 잘 순종하고 반대로 약자에게는 지배자의 심리를 가지며,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小林久高, 1989 : 392 ; 고영복, 1991 : 102~103).

이러한 비합리적 권위에 의한 권위주의적 성격은

의사소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서 ① 상하관계에서 이야기한다. ② 체면을 차려서 이야기한다. ③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 ④ 상대방의 복종과 충성을 요구한다. ⑤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⑥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다. ⑦ 일이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태도로 말한다. ⑧ 상대방의 단점이나 실수를 추궁하고 따진다. ⑨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의 權威主義의 意思疏通의 特性(송성자, 1985; 이창숙, 1988; 이정순, 1991)을 보이고 있다.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은 한국에서 부인들보다 특히 남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으로(송성자, 1985; 채수옥, 1986; 김은심, 1988; 서수경, 1988; 이창숙, 1988; 이정순, 1991), 이것은 남편이 부인과 비교하여 가부장제 규범의 지배를 많이 받아 계층서열의식이 강하고, 체면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부인을 무시하고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의사소통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송성자, 1985: 126).

2. 權威主義의 意思疏通에 影響을 미치는 變因選定的 背景

男便의 權威主義의 意思疏通과 관련된 변인은 夫婦間의 意思疏通 類型과 權威主義 性向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고찰하였다.

1) 個人的 變因

(1) 社會·人口學的 變因

김재은(1988)은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권위주의의 성향이 높다고 하였으며, Adorno et al(1950)도 교육경험의 양과 권위주의의 정도가 부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정도가 높은 집단이 표현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wkins & Weisberg & Ray, 1977; 원효중, 1984; 서수경, 1988).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남편일수록, 친숙형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원효중, 1984; 도미향, 1990), Korn이 상류계층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 통제에 대한 가치가 높고, 하류계층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순응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여(원효중, 1984 재인용) 직업

체계가 의사소통 양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친숙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미향, 1990),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한국의 가부장제 가족에서 가족성원간에 손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여러층의 신분서열이 엄격히 존재한다는 점(이광규, 1982)을 고려할 때 차남 이하보다 장남이 가부장제 규범의 지배를 많이 받아 권위주의의 성향을 갖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농경적 생활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권위주의적 성격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살펴볼 때(고영복, 1991: 101~102), 한 개인이 어떤 생활배경에서 성장하였는가는 사람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의사소통 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2) 心理的 變因

낮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권위주의와 관계가 있으며(Larsen, 1969; 서수경, 1988),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더 높은 정도의 권위주의를 나타내고 있어서(문기춘, 1987)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개인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raji(1977)와 Bernard(1976)는 성격할태도가 행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2) 夫婦間의 變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열등감, 무력감, 사회적 고립감, 불안감이 가득차 있으므로(문기춘, 1987) 이러한 성향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부간의 연령차와 학력차는 남편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며,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친숙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효중, 1984; 서수경, 1988; 도미향, 1990). 부부간의 의사결정은 오늘날 한국부부가 평등의 우선 조건으로 꼽고 있는 사항으로 의사결정에서 상대방 의견이 참작되어야 평등을 실감할 수 있으나 주요문제의 결정권은 아직도 남편이 많이 갖고 있어 교과서적인 부부의 평등과 실생활은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중앙일보, 1994, 7월 24일자). 따라서 의사결정에 대한 권력유무에 따라 남편이 비합리적인 권위를 갖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3) 家族環境的 變因

권위주의와 같은 태도와 신념체계의 기원은 비교적 어릴 때의 부모와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Champney, 1939; Lazarus et al, 1951; 김재은, 1968 재인용) 부모자녀관계가 비합리적 권위-의존관계에 있을 때 그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압도되어 복종하게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적의를 품거나 반항하게 되고,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갖어 한 사람의 권위주의적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며(曾良中清司, 1983: 164~165), 성장하여서는 자신의 아동기에 경험한 권위주의적 훈육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를 훈육하게 된다(Byrne, 1965; 김재은, 1968 재인용).

Frenkel Brunswik(Christie, R. & Marie Jahoda, 1954 재인용)와 문기춘(1987)은 사회경제적 계급이 낮을수록 권위주의의 정도는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기숙(1988)은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어서 형성기일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도미향(1990)의 연구에서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친숙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4년의 40.7%에서 1993년에는 47.2%로 6.5% 증가하였는데(1993년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30~35),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남녀동등사상과 여성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부관계의 평등을 위하여 아내의 취업이 필요하다는 점을(중앙일보, 1994, 7월 24일자) 감안해 볼 때 부인의 경제활동참여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3. 用語의 定義

1) 個人的 變因

남편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으로 변인선정 배경에 의하여 선정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출생순위, 성장지역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격역할태도, 소외감, 자아존중감인 심리적 변인을 개인적 변인으로 한다.

2) 夫婦間的 變因

남편과 부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말하며, 변인선정 배경에 의하여 선정된 부부간의 연령차와 학력차, 부부간의 결혼지속연수,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을 부부간의 변인으로 한다.

3) 家族環境的 變因

남편의 성장가족과 남편과 부인이 함께 속해 있는 현재가족의 환경적인 상황, 그리고 남편에 대해 환경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인의 특성을 말하며, 변인선정 배경에 의하여 선정된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 주관적인 사회계층, 가족주기, 가족유형, 부인의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가족환경적 변인으로 한다.

III. 研究方法

1. 測定道具

1) 男便의 權威主義的 意思疏通尺度

송성자(1985), 이창숙(1988), 이정순(1991)의 연구를 토대로 12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는 동일한 12문항에 대하여 남편이 자신을 평가한 것과 부인이 남편을 평가한 것을 합하여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12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90이었다.

2) 性役割態度尺度

Osmond와 Martin(1975)의 Sex-Role Attitudes Scale(SRA)을 토대로 8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로 보았다. 성역할태도에서 전통적인 태도는 남성 역할과 여성 역할이 구분되며, 근대적인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형편에 따라 융통성있게 공유되고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8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3이었다.

3) 疏外感尺度

문기춘(1987)의 연구를 토대로 11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

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11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4이었다.

4) 自我尊重感尺度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SEQ: Self-Esteem Questionnaire)를 토대로 9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9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3이었다.

5) 夫婦간의 意思決定權尺度

R.Blood와 D.Wolfe(1960)의 연구를 바탕으로 7개 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주도형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7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2이었다.

6) 親父의 權威主義의 行動尺度

송성자(1985), 이창숙(1988), 이정순(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17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행동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17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92이었다.

7) 기타 人的상황 및 家族상황에 대한 變因들

기타 인적상황 및 가족상황에 대한 변인들로는 연구대상자인 남편의 연령·교육수준·직업·소득수준·출생순위·성장지역에 대한 문항과 부인의 연령·교육수준·취업유무 그리고 부부의 결혼지속년수와 가족주기, 가족유형, 주관적 사회계층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지속년수는 개방형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공식적인 학교교육년수를, 소득수준은 월평균소득을 묻는 문항이고, 결혼지속년수는 총개월수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사회계층은 최하층 1점에서 최상층 7점까지의 범주를 갖도록 하여 해당번호를 기입하도록 작성하였다.

2. 調查對象 및 資料蒐集

서울시에 거주하는 3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1994년 5월 24일 부터 6월 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1994년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412쌍의 부

부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738부(369쌍: 89.6%)가 회수되어 내용의 기재가 부실한 58부(29쌍)와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가不在하였던 사례 24부(12쌍)를 제외한 656부(328쌍: 79.6%)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와 그 가족의 특성은 표 1, 2, 3과 같다.

3. 資料의 分析方法

응답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sidual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가정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와 잔여분산(residual variance)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 4)에서 소외감 변인과 소외감·결혼지속년수 변인을 각각 제외함으로써 다중공선성에 있어서도 안전함을 검색하였다. 또한 잔차분석(Residual analysis)결과 자기상관이 없음과 정규분포성을 띄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점수화할 수 있는 변인은 점수화하였으며, 그외의 명목변인은 가변인 처리를 하여 사용하였다¹⁾.

IV. 研究結果 및 解析

연구대상자 집단의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정

1) 변인의 점수화 및 가변인 처리는 다음과 같다(@은 가변인).

- ① 출생순위 : 맏이·독자=1, 중간자녀=2, 막내자녀=3
- ② 직업 : 무직=1점, 비숙련직=2점, 반숙련직=3점, 숙련직=4점, 판매/서비스직=5점, 사무직=6점, 관리직=7점, 전문직=8점
- ③ 성장지역@ : 농어촌=1, 도시=0
- ④ 부부간의 연령차@ : 부인이 연상=1, 동갑이거나 남편이 연상=0
- ⑤ 부부간의 학력차@ : 부인이 더 높은 학력=1, 같은 학력이거나 남편이 더 높은 학력=0
- ⑥ 가족주기 : 형성기=1, 자녀출산 및 양육기=2, 자녀교육기=3, 자녀성인기=4, 자녀결혼기=5, 탈부모기=6
- ⑦ 가족유형@ : 핵가족=0, 확대가족=1
- ⑧ 부인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 참여=0, 비참여=1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변인 특성

(N=328)

변인	범주	남편(N=328)		부인(N=328)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연령	20대	8	2.4	34	10.4
	30대	130	39.6	154	47.0
	40대	120	36.6	103	31.4
	50대	62	18.9	35	10.7
	60세 이상	8	2.4	2	0.6
교육수준	국졸이하	10	3.0	16	4.9
	중졸	26	7.9	54	16.5
	고졸	106	32.3	158	48.2
	대졸	159	48.5	92	28.0
	대학원이상	27	8.2	8	2.4
직업	전문직	21	6.4	3	0.9
	관리직	85	25.9	7	2.1
	사무직	78	23.8	16	4.9
	판매/서비스직	79	24.1	62	18.9
	숙련직	45	13.7	14	4.3
	반숙련직	3	0.9	5	1.5
	비숙련직	9	2.7	8	2.5
	무직, 주부	8	2.4	213	64.9
한달평균수입 a)	80 만 원 미만	16	4.9	57	49.6
	80-120 만 원 미만	72	22.0	28	24.3
	120-160 만 원 미만	121	36.9	17	14.8
	160-200 만 원 미만	20	6.1	3	2.6
	200-240 만 원 미만	61	18.6	7	6.1
	240 만 원 미만	38	11.6	3	2.6
성거장역	농어촌	118	36.0	106	32.3
	중소도시	49	14.9	67	20.4
	대도시	161	49.1	155	47.2
출생순위	만일, 독자	142	43.3	145	44.2
	중간자녀	136	41.5	133	40.5
	막내자녀	50	15.2	50	15.2

a) 부인집단의 한달평균수입의 빈도와 백분율은 취업주부 N=1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를 살펴보면, 가능범위점수는 12~60점, 실제범위 점수는 14.50~51점이었으며, 평균(M)은 32.40, 표준편차(SD)는 6.76으로 나타났다.

1. 研究問題 1의 結果 및 解析

개인적 변인 중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소외감 변인을 제외한 8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하였다.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P<.05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적 변인과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표 4와 같다.

8개의 독립변인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심리적 변인이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P<.001)과 성역할태도(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 = -.2960$)이고 그 다음은 성역

표 2. 조사대상자의 부부간 변인 특성 (N=328)

변인	범	주빈도(N)	백분율(%)
연령차	부인 이연상	14	4.3
	동갑	34	10.4
	남편 이연상	280	85.4
학력차	부인이더높은학력	33	10.1
	같은학력	118	35.9
	남편이더높은학력	177	53.9
결혼지속 년수	6년미만	63	19.2
	6년이상-11년미만	83	25.3
	11년이상-16년미만	61	18.6
	16년이상-21년미만	40	12.2
	21년이상-26년미만	53	16.2
	26년이상	28	8.6

표 3. 조사대상자의 가족환경적 변인 특성 (N=328)

변인	범	주빈도(N)	백분율(%)
가족유형	핵가족	276	84.1
	확대가족	52	15.9
가족주기	형성기	39	11.9
	자녀출산및양육기	73	22.3
	자녀교육기	137	41.8
	자녀성인기	58	17.7
	자녀결혼기	17	5.2
	탈부모기	4	1.2
주관적인 사회계층	상층	14	4.3
	중상층	53	16.2
사회계층	중하층	160	48.8
	중하층	71	21.6
	하층	30	9.2

표 4.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개인적 변인의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N=328)

독립변인	종속변인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B	β	Partial R ²
자아존중감	-.3943	-.2960***	.1033
성역할태도	.3318	.2057***	.0416
회귀상수	35.2363		
R ² (adjusted R ²)	.1449 (.1397)		
F	27.5412***		

***P<.001

할태도(β=.2057)이며, 이들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전체 분산 중 14.5%를 설명해주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낮을수록,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일수록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研究問題 2의 結果 및 解析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P<.05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부간의 변인과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표 5와 같다.

4개의 독립변인 중 부부간의 의사결정권(P<.001), 부부간의 학력차(P<.05), 부부간의 연령차(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부간의 변인은 부부간의 의사결정권(β=.2949)이고, 그 다음으로는 부부간의 학력차(β=.1171), 부부간의 연령차(β=-.1152)순이다. 이들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전체분산 중 11.3%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이 남편주도형일수록, 부인이 더 높은 학력인 경우가 같은 학력이거나 남편이 더 높은 학력인 경우보다, 동갑이거나 남편이 연상인 경우가 부인이 연상인 경우보다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았다.

3. 研究問題 3의 結果 및 解析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P<.05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환경적 변인과 이들 변인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5개의 독립변인 중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P<.001), 주관적인 사회계층(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β=.2879)이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인 사회계층(β=-.1727)이다. 이들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전체분산 중 11.5%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많을수록, 주관적인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研究問題 4의 結果 및 解析

개인적 변인, 부부간의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회귀모델을 설정하므로써 얼마나 더 잘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설명해 줄 수 있

으며, 가장 중요시되는 영향변인들은 무엇인지 파악해보았다.

개인적 변인, 부부간의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 중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소외감과 결혼지속년수를 제외한 16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다. 남

표 5.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변인의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N=328)

독립변인	종속변인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B	β	Partial R ²
부 부 간 의 의 사 결 정 권		.4827	.2949***	.0867
부 부 간 의 학 력 차 @		2.6273	.1171*	.0130
부 부 간 의 연 령 차 @		-3.8449	-.1152*	.0132
회 귀 상 수			21.8420	
R ² (adjusted R ²)			.1129 (.1047)	
F			13.7479***	

*P<.05 ***P<.001, @은 가변인

부부간의 학력차@ : 부인이 더 높은 학력=1

같은 학력이거나 남편이 더 높은 학력=0

부부간의 연령차@ : 부인이 연상=1, 동갑이거나 남편이 연상=0

표 6.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가족환경적 변인의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N=328)

독립변인	종속변인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B	β	Partial R ²
親 父 의 권 위 주 의 적 행 동		.1827	.2879***	.0854
주 관 적 인 사 회 계 층		-1.1138	-.1727***	.0298
회 귀 상 수			27.9639	
R ² (adjusted R ²)			.1152 (.1098)	
F			21.1665***	

***P<.001

표 7. 개인, 부부간, 가족환경 변인을 모두 고려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N=328)

독립변인	종속변인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B	β	Partial R ²
자 아 존 중 감		-.3502	-.2629***	.1033
부 부 간 의 의 사 결 정 권		.4313	.2635***	.0869
親 父 의 권 위 주 의 적 행 동		.1091	.1719***	.0387
성 역 활 태 도		.1915	.1187*	.0133
부 부 간 의 학 력 차 @		2.2293	.0994*	.0099
회 귀 상 수			22.7468	
R ² (adjusted R ²)			.2521 (.2404)	
F			21.7024***	

*P<.05 ***P<.001, @은 가변수

부부간의 학력차@ : 부인이 더 높은 학력=1

같은 학력이거나 남편이 더 높은 학력=0

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들 변인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최종적인 유의미한 변인은 개인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P < .001$), 성역할태도($P < .05$)이며, 부부간의 변인으로는 부부간의 의사결정권($P < .001$), 부부간의 학력차($P < .05$), 가족환경적 변인으로는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P <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10.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학력차가 차례로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전체 분산 중 25.2%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에서 남편주도형이 많을수록,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많을수록,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이 더 높은 학력인 경우가 같은 학력이거나 남편이 더 높은 학력인 경우보다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았다. 부부간의 변인인 부부간의 연령차와 가족환경적 변인인 주관적인 사회계층은 부부간의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의 개별적 분석을 통해서는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나, 이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변인들에 비하여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변인으로써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져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관계, 환경적인 변인의 설명력을 각각 살펴본 결과 개인적 변인은 14.5%, 부부간의 변인은 11.3%, 가족환경적 변인은 11.5%의 설명력을 각각 가지고 있는 반면, 개인적 변인, 부부간의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는 25.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부분의 개별적 분석을 통해서는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個人的 變因, 夫婦間的 變因, 家族環境的 變因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개인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P < .001$), 성역할태도($P < .001$)가, 부부간의 변인으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P < .001$), 부부간의 학력차($P < .05$), 부부간의 연령차($P < .05$)가, 가족환경적 변인으로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P < .001$), 주관적인 사회계층($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전체 분산 중 14.5%, 11.3%, 11.5%를 각각 설명해 주고 있다. 한편 개인적 변인, 부부간의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한 회귀모델에서는 개인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P < .001$), 성역할태도($P < .05$), 부부간의 변인으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P < .001$), 부부간의 학력차($P < .05$), 가족환경적 변인으로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들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전체 분산 중 25.2%를 설명해주고 있어서 개인적 변인, 부부간의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설명력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남편의 權威主義的 意思疏通이라는 개인의 역기능적 행동은 개인이라는 독립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하는 관계 측면과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개인, 관계, 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2) 개방적이고 적응적인 부부체계는 다양한 출발점으로부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표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동결과성(equifinality)을 갖으므로 남편의 權威主義的 意思疏通 關聯變因들을 통해서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부부간의 圓滿한 意思疏通과 民主的인 關係形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첫째,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상대방도 존중할 수 있으므로 남편 뿐만 아니라 부인도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어 원만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남성역할과 여성역할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는 남편은 근대적인 가치에 발맞추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형편에 따라 융통성있게 공유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므로써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여성과 남성을 대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어야 한다. 셋째, 남편은 제반 가족문제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결정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의사결정자로서 부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넷째, 성장가족에서 아버지의 영향이 크므로 成長家族 배경을 통하여 남편은 본인의 행동을 진단해보고 이해하므로써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은 남편 개인의 독립요인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부부간의 관계와 환경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남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상호작용하는 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는 동반자이다. 그러므로 부인은 남편의 成長背景과 夫婦간의 學歷差에서 오는 남편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므로써 남편의 역기능적 행동을 이해하고, 남편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즉 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격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기법들을 부단한 훈련을 통하여 습득한다거나,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를 발견하여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인선정 근거가 되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부부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접효과만을 살펴 보았을 뿐 간접효과, 허위적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와 허위적 관계까지도 밝혀주는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은심(1988).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부인의 정신·신체증상 호소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 김재은(1968). 권위주의와 아동의 행동. 교육학연구 6(2), 5-11.
 3) _____(1988).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문헌 및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4) 고영복(1991). 한국사회의 구조와 의식.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5) 도미향(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부부간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문기춘(1987). 소외가 권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서수경(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송성자(1985). 한국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 관한 연구: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숭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원효중(1984).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식과 의사소통 불안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유영주(1994). 미래의 가정-한국가정의 현재와 미래-. 미래사회와 가정 「세계 가정의 해」기념학술대회. 대한가정학회.
 11) 이기숙(1988).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67-187.
 12) 이광규(1982).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13) 이정순(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75-189.
 14) 이창숙(1988). 한국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23.
 15) 중앙일보(1994). 부부평등 아직 멀었다. 7월 24일자 12면.
 16) 채수옥(1986).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주부의 신경증 경향에 미치는 영향.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통계청(1994). 1993년 경제활동인구연보. 제32호.
 18) 曾良中清司(1983). 權威主義의 人間. 東京:有斐閣.
 19) 小林久高(1989). 權威主義·保守主義·革新主義. 社會學平論 39(4), 392-405
 20) Adorno, T.W., Frenkel-Brunswik, Else, Levinson, D.J. & Sanford, R.N.(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 New York : Harper & Row.
- 21) Araj, S.K.(1977). Husbands' and Wives' Attitude-Behavior Congruence on Family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309-320.
- 22) Bernard, J.(1976). Change and Stability in Sex-Role Norms and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32, 207-223.
- 23) Blood & Wolfe, D.M.(1960). *Husbands and Wives :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ew York : Free Press.
- 24) Champney, H.(1939). Measurement of Parent behavior as a Part of the Child's environment. Doctor's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 25) Christie, R. & Marie Jahoda.(1954). *Studies in the scope and method of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 Free Press.
- 26) Hawkins, J.L., Weisberg, C. & Ray, D.L.(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479-490.
- 27) Larsen, Knud, S, et al.(1969). Authoritarianism, self esteem and insecurity. *Psychological Reports* 25, 229-230.
- 28) Osmond, M.W. & Martin, P.Y.(1975). Sex and Sexism :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 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744-758.
- 29)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